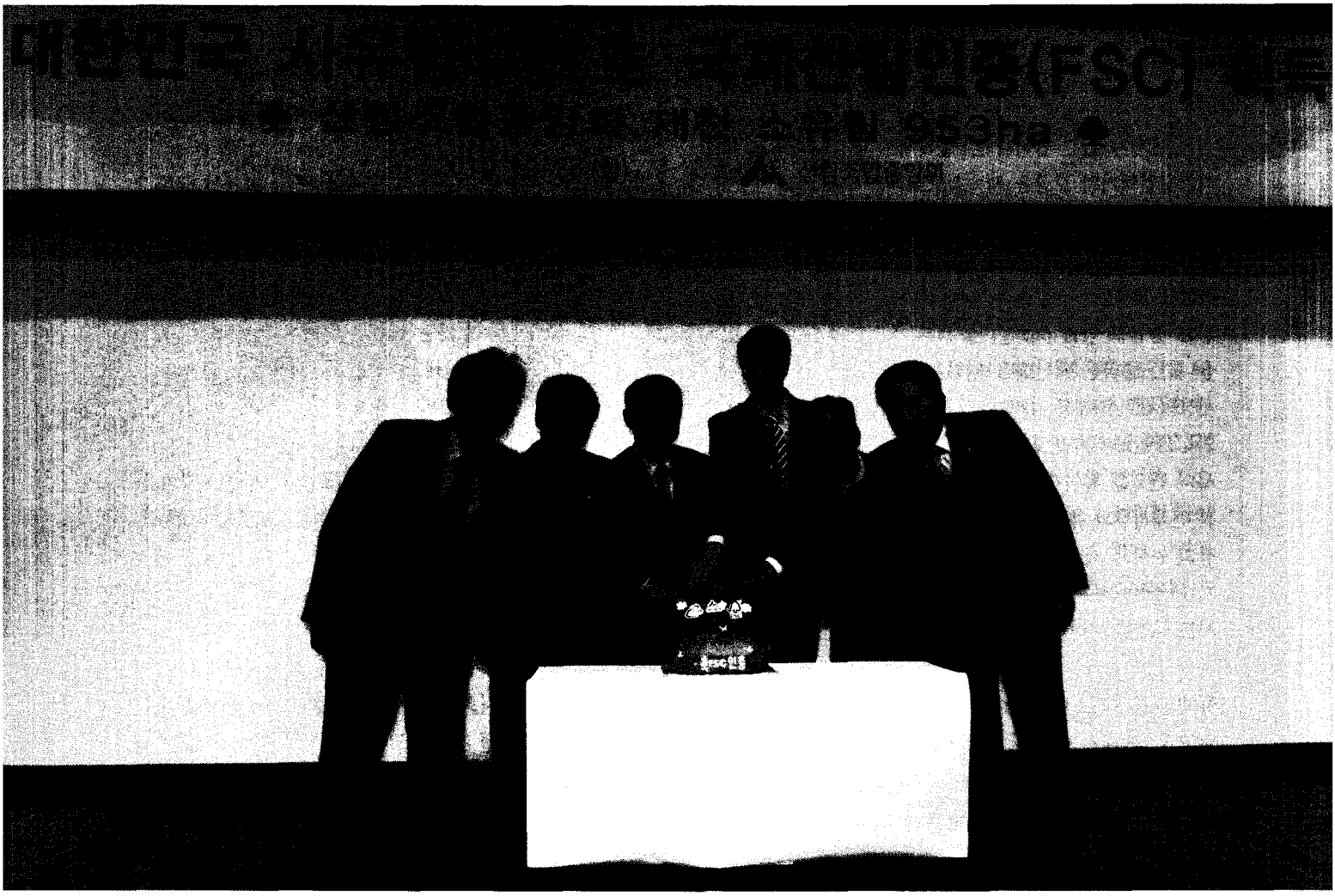

사유림 제1호 국제산림인증획득을 기념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는 모습

컨트롤유니온 써티피케이션 코리아 산림조합중앙회와 FSC 인증서 전달식

컨트롤 유니온 써티피케이션 코리아(대표 얀 시퍼)는 구랍 2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강당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유림 국제산림인증(FSC)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림인증(FM/COC)을 취득한 대상지는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유림 953ha이다. (국 · 공유림 인증 187,393ha)

이번 인증심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FSC 공식인증기관인 CONTROL UNION KOREA의 선임심사원 및 지역심사원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10월 11일 예비심사, 12월 7~8일 양일간의 현지심사와 함께 본 심사를 거쳐 FM(Forest Management), CoC(Chain of Custody) 최종인증을 승인받았다. 인증내용은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과 임산물 인증(Chain of Custody)이며, 인증기간은 5년이다.

FSC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로 1990년대 불법경작과 벌목으로 인한 열대림 감소 및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환경단체들에 의해 1993년 설립했으며,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FM)과 생산 · 유통인증(Chain Of Custody/CoC)로 구분되어 있다.

다양한 산림사업서비스 강화

얀 시퍼 대표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FSC 산림인증에는 큰 의미가 있다. 기업 및 소비자가 FSC 인증로고가 들어간 목재제품, 종이류 제품, 산나물류, 버섯류, 약채류 등을 구매 또는 사용할 때 이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한다는 표현이고, 산림자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불법목재의 사용 자제를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유수한 기업 및 정부,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 및 장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산림조합중앙회의 FSC-FM(산림경영)/COC(임산물 인증) 인증은 지금까지 저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임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고, 사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정책과 시행에 있어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동등성을 부여받는 등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 목재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해 국산목재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유림 제1호 국제 산림인증(FSC)은 국내산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SC 인증림의 산림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유림의 경영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산림사업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FSC의 산림인증 체계

FSC 산림인증시스템은 산림경영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을 갖는 산림경영활동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3자 인증기관이 심사, 인증한다. 인증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제품에는 인증로고를 부착해 소비자가 인증 목재 및 목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한다는 구상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도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한다는 것으로 인정받아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클럽)에서 발표하는 '국가 환경지속성 지수'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림 및 환경관리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요구에 맞게 지속가능한 건강한 산림을 후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FSC 인증 제품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제기준인 FSC 산림인증 취득을 계기로 국내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산림인증 표준을 자체 연구·개발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의 FSC 산림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유럽이 전체 인증면적의 50%인 3280만ha, 북미지역이 32%인 2084만ha,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6%인 237만ha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1040만ha의 산림이 인증을 받았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서동면 산림조합 부회장과 얀시퍼 컨트롤유니온 대표의 기념촬영 모습